

辛丑年 새해설계

“市 승격 등 현안 해결 지역 발전 앞장”



김산 무안군수

“군민이 군정의 주인이 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행복한 도시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김산 무안군수는 “올해 ‘전남의 수도, 플랫폼 무안’이라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로 무안의 미래 비전을 표방하고 힘찬 각오로 신축년을 출발한다”며 “이전에 없던 지역 발전의 큰 기회들이 놓여 있는 만큼 호기를 놓치지 않고 발전시켜 알찬 성과로 일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군수는 지역 최대 현안으로 인구문제 해결을 꼽았다. 이에 인구 1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한 종합 인구대책을 수립, 시(市) 승격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용역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차별화된 지역 맞춤형 성장기 인구정책을 수립한다.

도시 활력 제고를 목표로 양질의 일자

인구 10만 달성 목표 맞춤형 성장기 인구대책 수립
도농 균형개발·관광활성화·촉진한 안전망 구축 전력

리 창출에 온 힘을 쏟는다. 지난해 11월 착공한 항공특화산업단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2022년 운영을 시작한다. 우수 기업 유치, 고급인력 유입과 지역인재 정착,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일자리 생태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무안국제공항 주변 항공국가산업단지 신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항공 정비 산업과 연계해 첨단 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경제 시대에 대비한 정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올해 청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주

거 지원, 창직 전문가 육성, 청년 고용 기업 지원 등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비대면 소비 증가에 따른 디지털 일자리 수요를 청년 취·창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도·농 화합과 상생 모델 구축을 통해 균형 개발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원도심은 도시재생뉴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을 통해 문화복지 시설과 기초 인프라를 확충,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복안이다.

남양과 오룡은 행정도시·교육도시의

위상을 정립하고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견고 싶은 도시로 가꿀 예정이다.

기후변화와 농어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위기 대응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과학영농 기반 시설인 첨단 농업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지역 기후에 적합한 아열대 작물 재배를 특화산업으로 육성한다. 첨단 ICT기반 스마트팜 시설을 확산해 노동력 절감과 생산량 증대를 도모하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활성화를 통한 판로 확보와 브랜드 경쟁력 제고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청정 무안’ 매력 증진에도 주력한다.

군은 지역 대표 명소인 도리포·톱머리·영산강에 대해 명소화사업을 추진,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회산백련지와 황토갯벌랜드는 차

별화된 기반 시설 확충으로 이색 체험과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사계절 생태 관광지로 개발한다.

촉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도 구현된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복지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동네 복지공동체, 시니어클럽, 치매 안심센터 등 적극 활용,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안군 가족센터를 건립하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아동 돌봄 시설 확충도 이뤄진다.

김산 군수는 “소통과 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조직 진단을 실시해 군민이 체감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을 만들어 신명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무안=최옥수기자

진도군 인구 3만1천명선 회복했다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 3개월만에 1천275명 전입

진도군의 ‘내고장 내직장 주소 갖기’ 범군민 운동이 성과를 내며 인구 3만1천 명선을 회복했다.

진도군 인구는 지난해 10월 3만233명으로 3만명 붕괴 위기에 처했지만 올해 1월 초순 기준 3만1천227명을 기록했다. 진도군 인구는 1968년 최대 11만명에 달했지만 취업 인구 유출과 자연 감소 등으로 50여년 동안 지속 감소했다.

군은 지역 인구구조의 불균형과 인구 감소 문제의 총체적 위기를 인식하고 범군민 차원의 참여 만이 인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인구 늘리기 운동’에 나섰다.

인구 3만1천명 회복에는 공무원들의 노력과 군민 협조가 큰 역할을 했다. 진도군에서 직장에 다니거나 생활하면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기관·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입을 독려했다.

공무원들이 앞장서 전입 캠페인을 펼치면서 주소를 옮기는 사람이 늘었다. 기관·사회단체·기업체 등을 방문해 전입할 경우 다양한 혜택 등을 홍보했다. 수시로 간담회를 열어 협조를 당부했으며 기관·단체·기업체에 임직원들의 전입 협조 공문도 발송했다. 이를 공감한 기업·기관 단체의 직원들이 동참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 까지 총 1천275명이 전입했으며 1991년 이후 29년 만에 주민등록 인구수가 증가했다.

진도군은 인구 3만명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미전입한 기관·단체·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고장 내직장 주소 갖기 운동’을 펼쳐 전입을 지속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전입 장려금 인상과 마을별 전입 운동 포상제 등 인구 늘리기 시책을 적극 펼칠 계획이다.

중장기 대책으로 추진 중인 군내면 신거리 귀농이주단지(100세대), 재외교포 귀향단지(280세대) 조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진도=박세권기자



명현관 해남군수 폭설 피해 현장 점검 연일 최강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해남군은 도로 제설 등 군민 안전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7일부터 비상근무를 통해 관내 주요 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을 실시, 주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사진은 명현관 해남군수가 지난 10일 화원면을 찾아 폭설로 인한 주민 피해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해남군 제공)

“노후경유차·전기차 지원금 신청하세요”

강진군, 5억1천200만원 확보 보조금 사업 확대 시행

강진군은 11일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지원과 전기자동차 보조금 사업을 선착순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국비를 포함한 5억1천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노후경유차 폐차 320여대와 매연저감장치 15대를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보조금도 확대해 전기차 동차는 25대에 대해 1대당 최대 1천54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15대에

최대 2천440만원을, 전기이륜차는 10대를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폐차 지원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강진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다.

매연저감장치는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제공해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이전부터 계속해 강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강진군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법인이다.

조기폐차 사업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2월 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매연저감장치는 강진군 환경측산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구매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을 강진군 환경측산과로 제출하면 된다.(문의 강진군 환경측산과 061-430-3302) /강진=정영록기자

영암군, 지역 근로자 코로나19 선제검사

내일까지 대불산단·대중교통 종사자 등 1만5천500여명

영암군은 11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취약한 대불국가산단 근로자와 대중교통 종사자 전수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수검사는 밀폐·밀집·밀접 등 3밀 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감염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날부터 13일까

지 3일간 1만5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임시 선별진료소 6개소에서 이뤄진다.

특히 이번 검사는 신속항원키트를 이용한 검사로 30분 내 결과를 확인하고 결과 이상자에 대해서는 PCR검사를 추가 진행하며 근로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점심과 저녁시간 대에 진행된다.

영암군은 전담에서 외국인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임을 감안해 대불국가산단 근로자 중 외국인 2천800여명의 검사가 끝나는 즉시 3천200여명의 외국인 전체에 대해서도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검사와 별도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방역에 집중,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암=이봉영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